

2009년 에너지산업 일자리 1만개 창출

정부가 2009년 미래첨단산업과 에너지산업에서 일자리 1만8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11월28일 개최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미래첨단산업과 에너지산업 일자리 창출 대책>을 확정했다.

미래첨단산업은 바이오와 로봇, 무선인식·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RFID·USN), 발광다이오드(LED) 등 4개 분야에서 시범사업 확산과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2009년 일자리 5800여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에너지산업은 전력과 가스, 원자력의 플랜트·설비투자 확대, 그린에너지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해 1만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미래첨단산업 4대 분야에 383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에너지산업 부분은 정부가 2조7000억원, 민간이 20조2000억원 등 총 22조9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8/11/28>